

완도, 생활인구 확대·정주여건 개선... 지방소멸 대응

국비 120억 투입 13개 사업 추진... '치유의 섬 완도' 속도 해양자원 활용 청년창업 기회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집중

완도군이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소멸 대응에 나선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을 투입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 인구 정책을 높이 평가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국비 120억원을 확보했다. 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해양과 산림 자원을 연계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로 치유산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섬 주민 통합 생활권 구축 등에 중점을 뒀다. 사업은 크게 13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하드웨어 분야에는 93억원을 투입해 산림치유 시설 조성,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노화·소년 연도고 건설, 어린이 도심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과 생활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7억원을 투입

해 완도 앞섬 힐링 패스, 치유 서플라이 운영, 섬(섬) 타는 칠링 버스킹, 해양치유 스포츠 플랫폼, 완도형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체류형·관계형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연구 기관과 청년들의 블루푸드 창업에 지원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해양치유와 함께 산림·음식·경관 치유 등 다양한 치유 관련 사업을 통해 단순 관광을 위한 방문 구조에서 벗

어나 머무르는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확충, 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형 인구정책 모델 등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해남,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재취업 희망 여성 22명 대상

해남군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이음바우처를 지원한다. 1인당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아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취업지원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부터 65세 경력단절여성이며, 신청일 기준 전남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전월 건강보험 고지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능하다. 총 2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까지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구입,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시 전남도에 주소가 없는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1회 이상), 202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수혜자,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수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력사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는 농업인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취업을 바라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무안군은 최근 국립광주과학관과 농어촌 주민의 AI·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무안군

무안, 주민 AI·디지털 문해력 강화 나선다 국립광주과학관과 업무협약...교육·체험 기회 확대

무안군이 국립과학관과 손잡고 농어촌 주민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산 무안군수,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주민의 AI·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주민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

학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AI 기초 이론과 실습 중심 교육을 비롯한 지역 거점시설을 활용한 교육 공간 지원, 사업 홍보와 참여자 모집, 시범사업 성과 분석·확대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 생활 속 디지털 교육과 AI를 활용한 그림·음악·글쓰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 '찾아가는 AI 과학관'과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과학기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앞으로 AI 교육캠프와 자격과정, AI 과학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내 관련 교육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강진사랑상품권, 올해 1~2월 판매액 100억 돌파

강진사랑상품권 판매액이 올해 1~2월 두달 동안 총 100억원을 기록하며,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판매실적을 보면 지류 상품권은 41억원(41%), 모바일(착) 상품권은 59억원(59%)으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중심의 소비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2월 설 명절을 맞아 한 달간 구매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모바일 상품권 이용 시 5%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 정책 효과를 꼽았다. 여기에 '강진반값여행'과 '강진청자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 전반에 소비가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자축제 개막에 앞서 축제장 내 판매부스를 모바일(착) 가맹점으로 사전 등록하고, 각 부스에 QR코드를 비치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군은 3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4%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의 부정용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위해 할인율 상향 지원은 모바일(착) 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영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방제 추진

영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확산 차단 발생에 이워지는 것이다. 재발생 이후 영암군은 지난 2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로 감염목 563본을 제거했다. 동시에 8개 읍·면 1만7783.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올해 집중방제에서는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ha 소구역 모두베기, 40ha 수종전환 방제, 165ha 합제·예방 나무주사를 추진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